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명 숙

2018년 8월



#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김 명 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김명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8월

<국 문 초 록>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self-identity

김 명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 위치한 5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48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15부를 제외한 46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하고 김용진(2006)이 20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한창훈(2012)이 재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송국(1999)이 일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기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제석봉(1989)이 제안하고 김경복(2005)이 사용한 설문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자기분화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자기분화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자율통제)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태도(자율통제)가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기분화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애정적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태도(애정적대)가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기분화를 통해 부분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자기분화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부정적 자아정체감 또는 역할혼미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분화를 기를 수 있는 상담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자기분화, 매개효과**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4
3. 용어의 정의 .....	6
II. 이론적 배경 .....	7
1. 부모양육태도 .....	7
2. 자아정체감 .....	8
3. 자기분화 .....	11
4.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자기분화와의 관계 .....	14
(1)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	14
(2) 자아정체감과 자기분화와의 관계 .....	15
(3) 부모양육태도와 자기분화와의 관계 .....	16
III. 연구방법 .....	19
1. 연구대상 .....	19
2. 측정도구 .....	20
(1) 양육태도 척도 .....	20
(2) 자기분화 척도 .....	21
(3) 자아정체감척도 .....	22
3. 자료 분석 .....	23
IV. 연구결과 및 해석 .....	24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	24
2. 부와 모의 양육태도, 자기분화,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	26

3. 부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28
(1) 부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28
(2)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30
(3)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33
4. 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35
(1) 모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35
(2)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38
(3)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40
<b>V. 논의 및 제언</b> .....	44
1. 결론 .....	44
2. 제한점 및 제언 .....	47
<b>VI. 참고문헌</b> .....	49
<b>Abstract</b> .....	60
<b>부록(설문지)</b> .....	62

##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19
표Ⅲ-2. 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0
표Ⅲ-3. 자기분화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1
표Ⅲ-4. 자아정체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2
표Ⅳ-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	25
표Ⅳ-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	26
표Ⅳ-3. 부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28
표Ⅳ-4. 부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	30
표Ⅳ-5.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31
표Ⅳ-6.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	33
표Ⅳ-7.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33
표Ⅳ-8.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	35
표Ⅳ-9. 모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36
표Ⅳ-10. 모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	38
표Ⅳ-11.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38
표Ⅳ-12.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	40
표Ⅳ-13.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41
표Ⅳ-14.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	43



##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모형 .....	5
그림 IV-1. 부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완전매개효과 .....	30
그림 IV-2.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부분매개효과 .....	32
그림 IV-3.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완전매개효과 .....	35
그림 IV-4. 모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완전매개효과 .....	37
그림 IV-5.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부분매개효과 .....	40
그림 IV-6.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완전매개효과 .....	42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발달주기 상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발달 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새로운 도전과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최영란, 송진영, 2017).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변화는 상급학교와 미래에 대한 선택의 압력,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정체감과 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긍정적 발달은 청소년기 이후 환경적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이경아 등, 1999)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들은 이 시기에 치열한 입시경쟁과 학업스트레스까지 더해져 더 많은 혼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안녕감까지도 위협받고 있으며(전형택, 2016), 대부분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가정환경으로 인해 스스로 자아에 대한 정체감이나 존재감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중운, 최미숙, 2011).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주요한 발달과업이다. 자아정체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생각이며(Erickson, 1968), 개인의 내적 탐색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달한다(민하영, 권기남, 2004). Erikson(1969)은 청소년기의 특징으로서 자아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이상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또한 Erikson은 청소년기를 정체감과 역할혼미라고 하고, 이 시기의 발달과업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으므로 성공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정체감 혼미가 일어나 오히려 부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확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생애를 통틀어 청소년기가 가장 중요하다(김누리, 최명구, 2007)고 한다. 청소년 시기의 긍정적 자아정체감 확립은 자신의 가치관, 미래관 등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인식을 하도록 한다(이영미, 김경화, 민하영, 2006).

청소년기 동안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게 된다. 또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자아정체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거나 혼란스럽게 되면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에 대해 무능감과 열등감을 느끼며 인생의 목표에 대한 방향을 잃게 되고 타인을 불신하며 친밀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지민, 2009).

또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지만 심리·정서적인 밑바탕은 가족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기반한다(최연실, 김현영, 2005). 가정은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접하게 되는 최초의 학습장소이며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의 인지적, 정서적, 성격적 세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이현주, 1996). Bandura(1986)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아인식이 자신에 대한 평가와 가치를 획득하게 하며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는 자녀가 건강한 정신 내적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차적인 주요 환경적 요소(박은미, 1999; 백승진, 2008)로서, 어린 시절부터 지각되는 긍정적인 양육환경은 자녀가 성장했을 때 대인관계에서 느끼게 되는 불안을 감소시키며(김종운, 양민정, 2014) 자녀가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적, 긍정적이라고 지각하면 자녀의 사회불안 수준은 낮아지고, 부모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높아진다(강지혜, 2011; 김유정, 2015; 김혜민, 2008; 서경현, 2012).

윤영옥(2000)과 이은영(2004)은 부모가 대담한 양육태도에 대한 보고가 자녀가 보고한 양육태도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에 대한 인식보다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인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Schaefer(1965)는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자녀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자아발달에 영향을 주고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남희경, 2002). 또한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기의 올바른 자아정체감 발달을 형성하고 행

복한 삶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변인이며(김은경, 2009)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발달과업을 잘 완수해야 하고, 건강한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건강한 독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Blos, 1979). 문은미(2008)는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형성과 분리는 자신에 대한 건강한 개념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하였다.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분리를 이루려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키고 정서적 성숙과 가정으로부터의 개별화 정도를 의미하는 자기분화(이지민, 2010; 제석봉, 1989; 하상희, 2012)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으로 건강한 가족체계는 자녀의 자기분화를 증대시키고, 자녀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적인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증상을 낮춘다(Bowen, 1976)고 한다. 긍정적인 양육환경은 자녀가 자기분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반면 부정적인 양육환경은 자녀의 자기분화를 방해 하는데(권소희, 2014; 김진영, 2011; 남상철, 2004)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김보현, 1999; 김상옥, 2010; 이혜숙, 1992; 제석봉, 1989)고 한다.

자기분화는 Bowen 가족치료의 핵심 개념으로서, 개인의 발달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Bowen, 1982),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다스리면서 의미 있는 타인과 적절하게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Bowen, 1978). 또한 가족과의 융합에서 정서적 자주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안윤정, 2010; Tokar et al, 2003)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의 목표를 독립적으로 설정하며 성숙한 자세로 삶의 문제에 직면하지만(전미현, 2012)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 체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김진호, 2001).

자기분화가 잘된 사람은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고, 타인과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지각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목표지향적인 삶을 산다(Bowen, 1982). 또한 자

기분화는 가족과의 융합에서 정서적 자주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안윤정, 2010; Tokar et al, 2003)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의 목표를 독립적으로 설정하며 성숙한 자세로 삶의 문제에 직면한다(전미현, 2012). 반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 체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김진호, 2001). 박아청(1984)은 안정된 가치관과 일관성 있는 태도는 자기분화를 가진 사람의 특성으로서, 자기분화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자기분화 간의 관계성에 대해 밝히고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는 부정적 자아정체감 또는 역할혼미를 겪는 고등학생을 위한 상담전략 수립의 단서를 제공하고 고등학생의 자기분화 증진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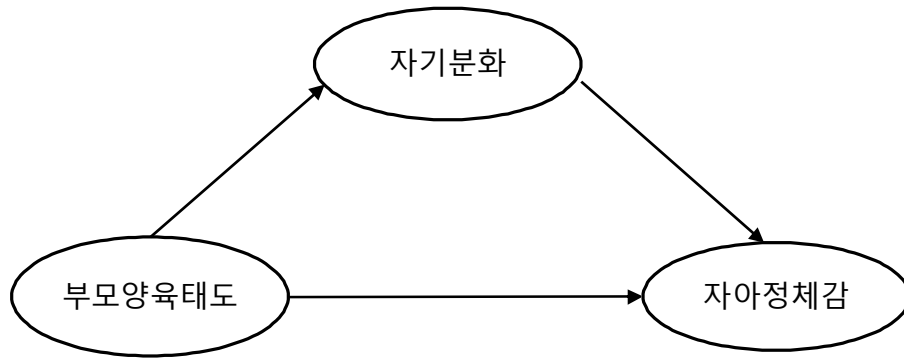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는 매개역할을 하는가?

가설 1-1.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2.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I-1> 연구모형

### 3. 용어의 정의

#### (1)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란 부모나 이를 대신한 다른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태도나 행동을 말한다(하영자, 2001). 본 연구에서는 schaefer(1959)의 이론에 따른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하고 김용진(2006)이 20문항으로 수정한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한창훈(2012)이 재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애정-적대, 자율-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 (2)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갈등에 직면하는 반복적 과정 속에서도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는 일관성 있는 통합과정이며 개인이 타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거나 자각하는 것이다(박남숙, 2005). 본 연구에서는 박아청(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이승국(1999)이 일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 (3) 자기분화

자기분화는 개인이 사고와 정서적 자주성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성숙과 태어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Bowen(1976)의 가족치료 이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석봉(1989)이 Bowen이 제시한 척도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5개 차원, 36개 문항으로 구성한 김경복(2005)이 사용한 설문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적, 외적인 태도나 행동을 말하며(권순명, 1993; 송설희, 1994), 자녀가 안정감 있고 건강한 정신 내적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 및 성장, 자기개념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이면서도 중요한 환경적 요소이다(박은미, 1999; 백승진, 2008).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정의를 내렸는데 피쉬바인(Fishbein)은 양육태도를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보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것으로서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이며, 자녀가 때맞추어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적,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유진, 2008). Berk(1964)는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이며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와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재은(1974)은 양육태도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가 나타내는 태도로서 가정 안에서 자녀의 성격, 태도, 행동, 가치체계 등의 형성에 미치는 부모의 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프로이드와 에릭슨도 각 발달단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태도에 따라 자녀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부모의 반응 및 대처가 일관되게 지속되면 이를 양육태도라고 보았다(이지윤, 2000). 마혜정(2004)은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그 대리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자신의 성격 뿐 아니라 정서 상태, 가치관, 신념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가정 분위기, 가족구성, 가정의 사회적 지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의 개인적 조건, 자녀의 개인적 조건 등과 깊이 관계된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유형화 한 사람은 Symonds(1949)이다. 부모의 양



육태도를 거부-수용, 지배-복종이라는 2개 차원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2개 차원을 다시 지배에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복종에는 복종형과 익애형, 수용에는 간섭형과 불안형, 거부에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정환경의 변인을 중심으로 하여 애정-적대의 축과 자율-통제의 축 두 가지로 나타냈다(김선희, 2004).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부모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비교적 잘 대해 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성심, 이종승, 1982).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실제적인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진은영, 2001).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해 보면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1차적 환경으로써 자녀의 성장에 심리적, 물질적 영향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2.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이란 ego-identity이며 Identity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동일한 것’, ‘그것의 자기 자신’, ‘정체’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라틴어인 Identity에서 유래되었다(박아청, 1995). 자아정체감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Erikson(1963)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은 심리·사회적 정체감과 개별적 정체감의 개념으로 구별하였는데 심리·사회적 정체감이란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말하며, 개별적 정체감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지각하는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정체감이라 하였다.

Dignan(1965)은 자아정체감을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는 것으로 자기를 묘사해 주는 자기상들의 복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Marcia(1980)는 개인의 욕구, 능력, 신념 및 개인 내면의 내적이고, 자기 구성적이며 역동적인 구조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여러 가지 욕구, 충동, 능력, 신념 및 내면 등의 자체발생적인 내적, 역동적 체계이며 곧 자기 구조라고 하였다(이훈표, 1996).

Erikson(1959)은 자아정체감 확립은 생애 전체의 발달을 결정짓는다고 하면서 청소년기가 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Erikson, 1959; 정용선, 2014)하였다.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Erikson(1968)은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성숙과 함께 사회적 요구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며 이에 따른 결과로서 자아정체감 형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사회와 문화에서 바라는 가치에 대한 갈등 또한 커지는데 아동과 성인의 중간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들의 상충적인 요구와 모호한 기대감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최영란, 2017). 자아정체감은 주체적 자아와 객체적 자아간의 조화와 실존적인 자아를 의미하는데 누구의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동시에 혼자라는 불안감을 가지기도 한다. 자아정체감 형성은 전 생애를 통해 진행되는 과업이나 청소년기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며 자신에게 부여된 다양한 지위와 역할을 통합하여 자신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며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또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일관된 나를 유지해 가는 것이다(김하정, 2018).

박남숙(2005)은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갈등에 직면하는 반복적 과정 속에서도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는 일관성 있는 통합과정을 자아정체감이라 하였으며 개인이 타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거나 자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비슷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남들과는 다른 개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며 여러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일관성을 가지려고 한다. 즉 타인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내용 혹은 비슷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도 자아정체감이 강한 사람은 그 속에서 타인과 차별화 된다(김진아, 2004; 박아청, 2003). 자아정체감은 유아기의 부모-자녀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특히, 유아기에 모자관계를 통한 경험의 일관성으로 동일성에서부터 형성, 발달되는 신뢰감이 원초적인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서봉연, 1975).

Marcia(1980)는 자아정체감을 성취(achievement), 유예(moratorium), 유실

(foreclosure), 혼미(diffusion)로 분류하였는데 정체감 성취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확고한 신념체계를 확립하는 단계이며 정체감 유예는 정체감 위기 상태로 자기의 본질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다양한 역할 실험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체감 유실은 직업 선택과 개인적 신념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부모와 같이 의미 있는 타인의 가치나 기대 등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체감 혼미는 현재 위기 상태에 있지도 않고 개인적 해답을 얻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직업이나 이념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도 관심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오현정, 2009; 유혜림, 2015; 장희숙, 2012). Marcia가 제시한 정체감 혼미, 유실, 유예, 성취 네 가지 유형은 누구나 반드시 차례로 순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꺼번에 두세 가지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 정체감 성취로 향하는 발달단계에서 혼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잠정적으로 유예로 변형할 수 있는 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명창순, 2016; 신경원, 2010)고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자아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송설희(1994)의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으로 지각한 집단과 거부적으로 지각한 청소년 집단 사이에 자아정체감 수준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부모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김순기(2001)는 그의 연구에서 청소년기를 원 가족과의 관계를 의존적인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로 보고, 이 시기에 입시를 준비하거나 부모에게 의존적인 상태로 대학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사회의 특성상 성인기에 진입해서도 자아정체성이 미발달되었거나 원가족과의 관계가 의존적이고 미해결된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고 하였다. 가족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가족과의 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한상미(2011)는 그 이유를 사회에서의 역할이 다르기에 자칫 소원해지기 쉬운 가족구성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며, 양보하고 도와주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았다.

박아청(2004)은 고등학생들이 가장 높은 주체성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중학생시

기에 자아정체감 발달이 중요하나 자아정체감 의식의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고등학생들의 긍정적인 주체성을 위해 초기 청소년기부터 긍정적인 가치관과 자아에 대해 이해하는 환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보고하였다. 박미석과 조혜진(2002)은 또래와의 친밀도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가 지속될 시에 자아정체감이 낮게 형성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자아정체감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확립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써 긍정적인 가정환경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자아정체감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자기분화

분화라는 개념은 감정을 지적체계에 의해서 얼마나 잘 통제하고 지배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하며,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독립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가족의 감정 덩어리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과정이다(윤정연, 2000). 자기분화는 개인이 사고와 정서적 자주성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성숙과 태어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Bowen(1976)의 가족치료 이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자기 충동적, 정서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으로 평생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의 성장목표로서 미분화된 가족 자아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Vanderkooi, 1984: 전병화, 2008).

Bowen에 의하면 자기분화란 개인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를 말한다. 자기분화는 개인 내적 측면과 대인 관계적 측면으로 구분한다(박혜선, 2011). 개인 내적 측면에서는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말하는데(Vanderkooi & Handelsman, 1984) 정서적 기능은 인간 내부의 자동적 기능을 관장하는 본능적인 경향으로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분화되지 못하고 함께 융합되어 나타난다고 한다(Hollander, 1983). 대인 관계 측면에서는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진짜 자아가 발달하지 못하고 가짜 자아가 발달한 특징을 보이는데 자신의 일관된 신념에 따른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여 이질적인 타인의 견해에 쉽게 동조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공격이나 비난을 회피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자기분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지적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분화되어 자기 자신과 타인 및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여 대인관계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된다(Hansen & L'Abate, 1982; 이은주, 2001). 낮은 자기분화는 높은 불안이나 우울로 나타나게 되어 신체화 또는 정서적 역기능과 충동적 행위 그리고 위축과 비행행동으로 나타나는데 Bowen(1978)은 한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부적응 증상과 행동들의 원인이 자기분화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Bowen(1976)은 개인의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을 기본분화와 기능분화로 나누었다. 기본분화(basic differentiation)는 다세대 전수과정으로 명명되며,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원가족의 정서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가족의 분화 수준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세대를 거치며 부모 및 양육자의 분화 수준과 비슷한 분화 수준을 전수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 행동양식의 질적 부분으로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양육태도와 관련이 깊다. 기능분화(functional differentiation)는 개인이 원 가족에서 물려받은 기본분화 수준보다 높거나 낮게 기능할 수 있는데 현재 맺고 있는 관계과정에 의존하는 기능으로 사회적 관계와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 2012).

Bowen(1978)은 자기분화 수준을 0~100까지의 수적인 연속적으로 보고 이 연속선상의 한 지점에 개인이 위치한다고 보았다.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상처를 받고 증상을 드러내게 된다.(김유숙, 2002; 김정택, 심혜숙, 1992). 또한 이 척도에는 정상이라는 개념은 없다. 왜냐하면 자기분화의 수준이 낮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평형을 누리면서 다른 증상이 없이 산다면 또 다른 기준에서는 정상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윤경, 2017).

Mazor와 Sabatelli(1980)는 가족 구성원 한 명의 자기분화 과정은 가족 전체라는 큰 맥락과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 가족의 분화 수준이 직접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자기분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가족 체계의 분화 수준과 한 개인이 개별화될 수 있는 능력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Valerie, 2000; 백경하, 2003). 남상철과 유영달(2007)은 자기분화는 개인이 가족정서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지나친 애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개체화’와 동시에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대인관계의 성숙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관계성’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청소년기 자기분화의 경우 대인관계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높은 유연성을 보여 주어 심리적 증상으로의 이전이 제한된다(Gushue & Constantine, 2003). 따라서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을 때 부적응 행동과 대인간 문제를 많이 야기 시킨다(Hoffman & Weiss, 1987).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범죄율과 연결되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적 퇴행을 보이기도 한다(김유숙, 2007). 청소년은 자아정체감 형성과 성인기 안정적인 환경적응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자기분화가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가족체계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통제력과, 지각 및 자율성을 형성해 가면서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시기이다. 환경에 독립적으로 적응하는 이 시기에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발달적 개념이 자기분화인 것이다(정경연, 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분화는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김순재, 1996; 이은주, 2001), 김미경(2009)은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자기분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남상철, 유영달, 2007),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김광웅, 김순재, 1996; 유혜경, 2004; 이은주, 2001; 홍원표, 2013)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자기분화는 개인이 정서와 사고를 분리하고 원

가족으로부터 건강한 독립을 이루며 타인과 융합되지 않으면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치열한 입시경쟁과 학업스트레스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기반으로 자기분화 증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4.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자기분화와의 관계

##### (1)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의 위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김경중 등, 2012). Dyk(1990)는 청소년들의 발달에 의한 변화에 대해 가족들이 어떻게 적응하는가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청소년기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박아청, 2008).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는 애착, 자율적인 분위기, 부모 양육태도 등 가족들과의 결속력이 들어간다(김효은, 2013). 가정의 심리적인 환경 중에서 특히 많이 연구되는 변인은 부모 양육태도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있어서 자녀의 성격이나 사회화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자아정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공계숙, 2005)고 한다.

김효은(2013)은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 부모의 수용적 태도, 자율적 태도, 애정적 태도가 자아정체감 발달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화림(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 양육태도를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 태도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았다. 박아청, 이승국(2000)과 이강이(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수용적 태도, 자율적 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형태(1989)는 신뢰성과 목표지향성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있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아정체감의 점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의 하위요인에서 자율적 환경과 가족 상호간의 태도가 자아정체감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태영(1994)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체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으며 부모를 복종형으로 지각할수록 신뢰성이 높고 익애형으로 지각할수록 정체감이 높아지고, 아버지를 익애형으로 지각할수록 목표지향성이 높아진다고 했으며, 양상규(1989)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자아정체감 형성 수준이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강미애(1991)는 농어촌 지역의 자아정체감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가치 지향적이고 주어진 사회여건 속에서 잘 적응하는 특성을 보이며 자아정체감은 가정 분위기가 원만할수록 잘 발달된다고 하였으며 부모-자녀 관계가 친애적일때 자아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가정의 심적 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에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자기분화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자기분화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경희(2005)는 자기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발달한다고 하였고, Bowen(1976)은 자아가 분화되지 못하게 되면, 개인에게 있어서 부적응적 행동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은 자아정체감 형성뿐만 아니라,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친다(유혜경, 2004; 장사라, 2001)고 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기분화를 제대로 이루게 되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학교생활적응 등을 통해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부적응행동을 유발하는 등 건강한 발달을 이루기 어렵다(문정덕, 2006; 이신숙, 2000; 전춘애, 1994; Bowen, 1978). 자녀는 부모와 정서적으로 융합되기 쉽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대로 지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문희선, 1995). Vanderkooi 와 Handelsman(1984)은 자기분화를 자기충동적 정서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하고, 가족자아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문은미(2008)는 자아정체감



형성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형성과 건강한 분리는 청소년 자신에 대한 건강한 개념을 형성하여 자신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하였다.

가족과의 분화가 잘 된 개인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유지하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원 가족에게 융합되어 의존적이며 주위 사람들의 감정이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역기능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김정택, 심혜숙, 1992; Bowen, 1978). 따라서 자기분화는 개인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자기분화를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룩해야 하지만 가족과의 단절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수준의 자기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원 각자가 자아를 확립하여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강한 응집력으로 가족원들을 한데 묶어 주는 가족환경을 필요로 한다(제석봉, 1989). 자기분화와 자아정체감 발달은 모두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는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공유한다(옥경희, 1999)

### (3) 부모양육태도와 자기분화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대하기보다는 자녀를 통해 부모 자신의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보편화 되어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밀착하여(정은영, 2008) 자녀양육에 헌신적으로 몰입하게 되는(방희정, 2000) 실정이다. 이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야기시킨다(정은영, 2008). 그러나 부모가 긍정적이고 민주적,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면 자녀의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진다(김광웅, 김순재, 1996; 유혜경, 2004; 이은주, 2001; 홍원표, 2013)고 한다.

또한 김은정(2016)은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분화를 장려하는

반면 부모의 거부적이거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분화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다. 김진영(2012)은 특히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건강한 분화와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순재(1996)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분화는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한다. 부모에 대해 통제적으로 지각한 청소년은 자기분화의 각 하위영역 중 특히 ‘가족 퇴행’에서 가장 높은 상관성이 있고, ‘정서적 단절’과 ‘가족 투사’의 순으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한다. 이은주(2001)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기분화의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 별로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한다.

Hutchinson(1986)은 부모-자녀 관계가 덜 친숙하고 부모로부터의 개별화가 미약하고 삼각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경우에 자녀의 정서적 단절 정도가 높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율성이 부족하여 성숙한 개체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정미란, 1994). Hoffman(1984), Lopez & Campbell(1986) 및 Hoffman & Weiss(1987)도 개인이 자기 가족, 특히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여 가족 성원들 간의 갈등이 심할 경우 부적응적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Garfinkel(1980)은 가족 역동성과 정신 내적 증상이 자기분화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Hoffman(1984)은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정서적 특히 갈등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역기능적 행동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김미경(2009)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애정적, 자율적 양육을 받은 경우에 자녀의 자기분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owen(1976)은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개별화가 약할 때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고 의존성이 높아 성숙한 개체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Hauser(1984)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자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Hoffman은 개인이 자기 가족, 특히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한 청소년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합리적 사고의 발달이 높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심할 경우 부적응적 행동이 많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긍정적, 자율적,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분화를 증진시키고 청소년의 원가족과의 건강한 독립은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발달을 도우며 자녀가 성숙한 개체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부적응적 행동을 줄일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위치한 총 5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지역의 고등학교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 및 실시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를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2017년 8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설문시간은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8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15부를 제외하고, 총 46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232명(49.9%), 여학생 233명(50.1%)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였고, 학년은 1학년 148명(31.8%), 2학년 238명(51.2%), 3학년 79명(17.0%)으로 2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465)

구분	N(=465)	구성비율(%)	
성별	남	232	49.9
	여	233	50.1
학년	1학년	148	31.8
	2학년	238	51.2
	3학년	79	17.0

## 2. 측정도구

### (1) 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aefer(1959)의 이론에 따른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하고 김용진(2006)이 20문항으로 수정한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한창훈(2012)이 재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 양육태도와 모 양육태도는 각각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는 애정-적대, 자율-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적대’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 ‘적대’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역채점하였고, ‘자율-통제’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 ‘통제’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역채점하였다<표 III-2>. 따라서 각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과 자율 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먼저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의 Cronbach’s  $\alpha$ 는 0.814, ‘자율-통제’의 Cronbach’s  $\alpha$ 는 0.625로 나타났고 부의 양육태도 전체에 대한 Cronbach’s  $\alpha$ 는 0.830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의 Cronbach’s  $\alpha$ 는 0.815, ‘자율-통제’의 Cronbach’s  $\alpha$ 는 0.620로 나타났고 모의 양육태도 전체에 대한 Cronbach’s  $\alpha$ 는 0.830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65)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alpha$
부	애정-적대	10	1, 3*, 6, 8*, 10, 12, 14, 16*, 17, 18*	.814
	자율-통제	9	2*, 4, 5, 9*, 11, 13*, 15*, 19, 20*	.625
	전체	19		.830
모	애정-적대	10	1, 3*, 6, 8*, 10, 12, 14, 16*, 17, 18*	.815
	자율-통제	9	2*, 4, 5, 9*, 11, 13*, 15*, 19, 20*	.620
	전체	19		.830

\*역채점 문항

## (2) 자기분화 척도

자기분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owen(1978)의 자기분화 수준척도를 근간으로 하였다. 제석봉(1989)은 Bowen이 제시한 척도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5개 차원, 36개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석봉(1989)이 제안하고 김경복(2005)이 사용한 설문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한 것을 시행하였다. 김경복(2005)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자기분화 검사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에 대하여 역채점을 실시하였다.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정신내적분화’의 Cronbach’s  $\alpha$ 는 0.765, ‘자아통합’의 Cronbach’s  $\alpha$ 는 0.604, ‘가족투사과정’의 Cronbach’s  $\alpha$ 는 0.806, ‘정서적 단절’의 Cronbach’s  $\alpha$ 는 0.801, ‘가족퇴행’의 Cronbach’s  $\alpha$ 는 0.858, ‘자기분화 전체’의 Cronbach’s  $\alpha$ 는 0.870로 나타났다.

<표 III-3> 자기분화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65)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alpha$
정신내적분화	7	1*, 3*, 5, 7*, 9*, 11*, 13*	.765
자아통합	6	2, 4, 6, 8*, 10*, 12	.604
가족투사과정	6	14*, 17*, 20*, 23*, 26*, 29*	.806
정서적 단절	6	15, 18*, 21*, 24*, 27*, 30*	.801
가족퇴행	11	16, 19, 22, 25, 28, 31, 32, 33*, 34*, 35*, 36*	.858
전체	36		.870

\*역채점 문항

### (3) 자아정체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정체감 척도는 박아청(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이승국(1999)이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승국(1999)은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8개의 하위영역 중 ‘정체감 혼미’와 정체감 유예’ 등의 두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하위영역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정체감 타당성에 대한 후속 연구(박아청, 1996)에서 ‘정체감 혼미’와 정체감 유예’ 등의 2개 영역은 내용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각 하위영역은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총 48개 문항이며, 15개 문항은 긍정적, 33개 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이고,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에 대하여 역채점을 실시하였다.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주체성’의 Cronbach’s  $\alpha$ 는 0.825, ‘자기수용성’의 Cronbach’s  $\alpha$ 는 0.905, ‘미래확신성’의 Cronbach’s  $\alpha$ 는 0.924, ‘목표지향성’의 Cronbach’s  $\alpha$ 는 0.859, ‘주도성’의 Cronbach’s  $\alpha$ 는 0.883, ‘친밀성’의 Cronbach’s  $\alpha$ 는 0.850, ‘자아정체감 전체’의 Cronbach’s  $\alpha$ 는 0.956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자아정체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65)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alpha$
주체성	7	1, 7, 13, 19, 25, 31, 43	.825
자기수용성	8	2*, 8*, 14, 20*, 26*, 32*, 38*, 44*	.905
미래확신성	8	3*, 9, 15*, 21, 27, 33*, 39, 45	.924
목표지향성	8	4*, 10*, 16*, 22*, 28*, 34*, 40*, 46*	.859
주도성	8	5*, 11*, 17*, 23*, 29*, 35*, 41*, 47*	.883
친밀성	8	6*, 12*, 18*, 24*, 30*, 36*, 42, 48*	.850
전체	47		.956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3.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 점수 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의 부와 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의 하위변인들과 자기분화, 자아정체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와 모의 양육태도, 자기분화,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은 다음의 <표 IV-1>과 같다.

주요 변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점수를 살펴보면, 부의 양육태도 전체 평균은 3.60점, 모의 양육태도 전체 평균은 3.65점, 자기분화 전체의 평균은 3.40점, 자아정체감 전체의 평균은 3.31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태도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M=3.78$ ,  $SD=.614$ )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M=3.49$ ,  $SD=.507$ )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하위변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가족퇴행( $M=3.56$ ,  $SD=.682$ )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자아통합( $M=3.04$ ,  $SD=.473$ )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자기수용성( $M=3.64$ ,  $SD=.838$ )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목표지향성( $M=3.07$ ,  $SD=.746$ )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정규 분포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으로,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야 한다(배병렬, 2011; Kline, 1998) 부와 모의 양육태도, 자기분화, 자아정체감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살펴보면, 왜도의 절대값은 0.01에서 0.44, 첨도의 절대값은 0.05에서 3.10의 범위로 나타나 변인들의 분포가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N=465)

	하위요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반응척도
부의 양육태도	애정-적대	3.68	.643	-.44	.46	1-5
	자율-통제	3.51	.518	.02	-.10	1-5
	전체	3.60	.518	-.26	.17	1-5
모의 양육태도	애정-적대	3.78	.614	-.38	.12	1-5
	자율-통제	3.49	.507	-.01	-.27	1-5
	전체	3.65	.502	-.14	-.53	1-5
자기분화	정신내적분화	3.42	.672	-.26	-.09	1-5
	자아통합	3.04	.473	.25	3.10	1-5
	가족투사과정	3.54	.782	-.29	.20	1-5
	정서적 단절	3.30	.836	-.33	-.09	1-5
	가족퇴행	3.56	.682	-.22	-.12	1-5
	전체	3.40	.451	-.03	-.05	1-5
자아정체감	주체성	3.52	.630	.28	-.23	1-5
	자기수용성	3.64	.838	-.27	-.38	1-5
	미래확신성	3.30	.914	.05	-.43	1-5
	목표지향성	3.07	.746	-.08	.59	1-5
	주도성	3.22	.757	-.13	.41	1-5
	친밀성	3.11	.765	.04	.05	1-5
	전체	3.31	.600	.11	.42	1-5

## 2.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분화,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와 모의 양육태도(애정-적대, 자율-통제), 자기분화, 자아정체감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N=465)

변인	1	1-1	1-2	2	2-1	2-2	3	4
1 부_양육태도 전체	1							
1-1 부_애정적대	.721**	1						
1-2 부_자율통제	.643**	.568**	1					
2 모_양육태도 전체	.721**	.749**	.704**	1				
2-1 모_애정적대	.734**	.793**	.459**	.892**	1			
2-2 모_자율통제	.693**	.481**	.801**	.788**	.530**	1		
3 자기분화	.690**	.681**	.518**	.686**	.666**	.508**	1	
4 자아정체감	.422**	.417**	.317**	.414**	.409**	.305**	.526**	1

\*\* $p < .01$

부의 양육태도와 자기분화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기분화는 정적 상관( $r=.690, p<.01$ )이 나타났다. 또한 부의 양육태도 중, 부의 애정적대와 자기분화는 정적 상관( $r=.681, p<.01$ )이 나타났고, 부의 자율통제와 자기분화도 정적 상관( $r=.518, p<.01$ )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의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부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의 양육태도와 자기분화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기분화는 정적 상관( $r=.686, p<.01$ )이 나타났다. 또한 모의 양육태도 중, 모의 애정적대와 자기분화는 정적 상관( $r=.666, p<.01$ )이 나타났고, 모의 자율통제와 자기분화도 정적 상관( $r=.508, p<.01$ )이 나타났다. 따라서 모의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은 정적 상관( $r=.422, p<.01$ )이 나타났다. 또한 부의 양육태도 중, 부의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은 정적 상관( $r=.417, p<.01$ )이 나타났고, 부의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도 정적 상관( $r=.317, p<.01$ )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의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부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은 정적 상관( $r=.414, p<.01$ )이 나타났다. 또한 모의 양육태도 중, 모의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은 정적 상관( $r=.409, p<.01$ )이 나타났고, 모의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도 정적 상관( $r=.305, p<.01$ )이 나타났다. 따라서 모의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분화와 자아정체감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분화와 자아정체감은 정적 상관( $r=.526, p<.01$ )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분석의 결과에서 변수 간 상관계수가 0.90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될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행렬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학식, 2012).

이러한 상관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최종단계인 매개모형 분석에서 부와 모의 양육태도, 부와 모의 양육태도 하위변인들과 자아정체감과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본다.

### 3. 부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1) 부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부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3>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1>과 같다.

<표 IV-3> 부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 <sup>2</sup>	F	B	SE	β	t	공차	VIF
1	부_양육태도 전체	자기분화	.474	419.672	.600	.029	.690	20.486***	1.000	1.000
2	부_양육태도 전체	자아정체 감	.176	100.433	.488	.049	.422	10.022***	1.000	1.000
3	부_양육태도 전체	자아정체 감	.281	91.543	.131	.063	.113	1.308	.525	1.906
	자기분화				.596	.072	.449	8.252***	.525	1.906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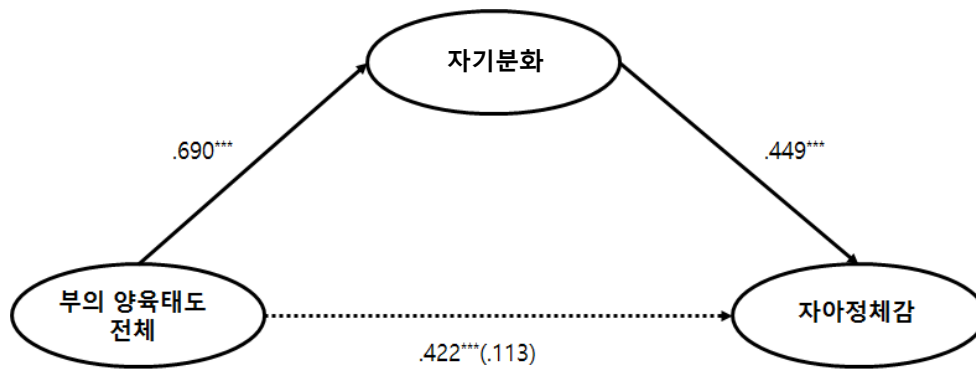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중다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변인들의 Tolerance 값이 .525으로 .1보다 확연히 크고, VIF 값이 1.906으

로 10보다 현저히 작았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양육태도 전체는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690, p<.001$ ),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양육태도 전체는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422, p<.001$ ),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기분화를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분화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beta=.113, p>.05$ ), 매개변인인 자기분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449, p<.001$ ). 이 때 부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3단계에서는 부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자기분화는 부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부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완전매개효과

또한 다음의 <표 IV-4>에서처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부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IV-4> 부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Sobel-Test)

변수의 경로 단계					매개효과 (Z-value)
부의 양육태도 전체	→	자기분화	→	자아정체감	7.685(.000)

\* $p < .05$ , \*\* $p < .01$ , \*\*\* $p < .001$

Sobel-test 분석 결과,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부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Z=7.685$ ,  $p < .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5>와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2>와 같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애정적대 태도는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681, p<.001$ ),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애정적대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애정적대 태도는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417, p<.001$ ),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자아정체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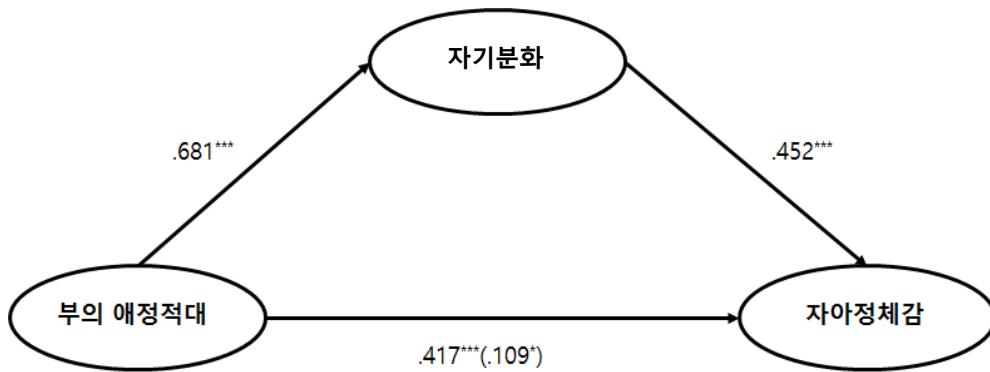
<표 IV-5>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beta$	$t$
1	부_애정적대	자기분화	.464	400.365	.478	.024	.681	20.009***
2	부_애정적대	자아정체감	.172	97.552	.389	.039	.417	9.877***
3	부_애정적대	자아정체감	.280	91.425	.102	.050	.109	2.035*
	자기분화				.601	.071	.452	8.404***

\* $p<.05$ , \*\*\* $p<.001$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애정적대 태도와 자기분화를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분화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의 애정적대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beta=.109, p<.05$ ), 매개변인인 자기분화도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452, p<.001$ ). 이 때 부의 애정적대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영향력이 .417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부의 애정적대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109로 감소하였으므로 자기분화는 부의 애정적대 태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2>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부분매개효과

또한 다음의 <표 IV-6>에서처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여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IV-6>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 효과 검증(Sobel-Test)

변수의 경로 단계				매개효과 (Z-value)	
부의 양육태도_애정-적대	→	자기분화	→	자아정체감	7.790(.000)

\* $p < .05$ , \*\* $p < .01$ , \*\*\* $p < .001$

Sobel-test 분석 결과,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Z=7.790$ ,  $p < .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7>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3>과 같다.

<표 IV-7>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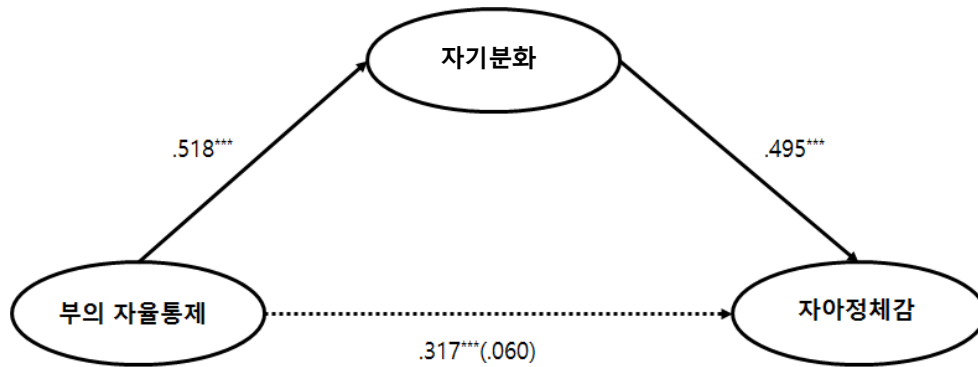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beta$	$t$
1	부_자율통제	자기분화	.267	170.014	.452	.035	.518	13.039***
2	부_자율통제	자아정체감	.099	51.736	.367	.051	.317	7.193***
3	부_자율통제 자기분화	자아정체감	.277	89.747	.070 .658	.053 .061	.060 .495	1.309 10.725***

\*\*\* $p < .001$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자율통제 태도는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518, p<.001$ ),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자율통제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자율통제 태도는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317, p<.001$ ),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자아정체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기분화를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분화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의 자율통제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beta=.060, p>.05$ ), 매개변인인 자기분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495, p<.001$ ). 이때 부의 자율통제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3단계에서는 부의 자율통제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자기분화는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3>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완전매개효과

또한 다음의 <표 IV-8>에서처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IV-8>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변수의 경로 단계					매개효과 (Z-value)
부의 양육태도_자율-통제	→	자기분화	→	자아정체감	8.279(.000)

\* $p < .05$ , \*\* $p < .01$ , \*\*\* $p < .001$

Sobel-test 분석 결과,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Z=8.279$ ,  $p < .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 (1) 모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9>와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4>와 같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양육태도 전체는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686, p<.001$ ),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양육태도 전체는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414, p<.001$ ),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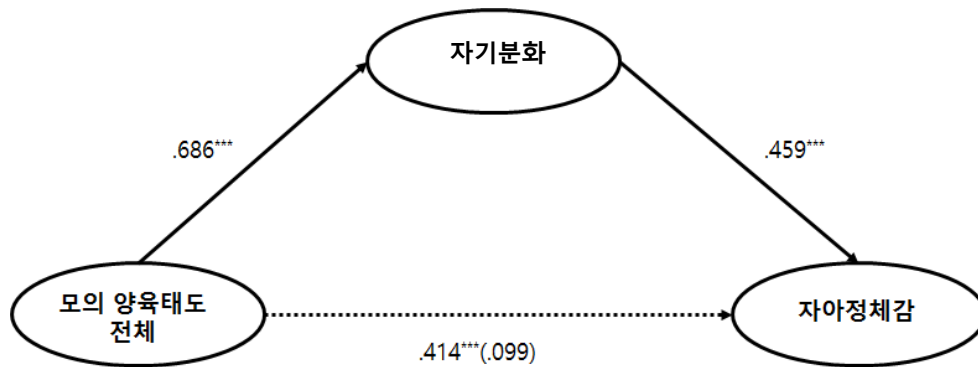
<표 IV-9> 모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beta$	$t$	공차	VIF
1	모_양육태도 전체	자기분화	.470	412.061	.616	.030	.686	20.299***	1.000	1.000
2	모_양육태도 전체	자아정체감	.169	95.506	.493	.050	.414	9.773***	1.000	1.000
3	모_양육태도 전체	자아정체감	.279	90.861	.118	.065	.099	1.823	.529	1.890
	자기분화				.610	.072	.459	8.464***	.529	1.890

\*\*\* $p<.001$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중다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변인들의 Tolerance 값이 .529으로 .1보다 확연히 크고, VIF 값이 1.890으로 10보다 현저히 작았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기분화를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분화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모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beta=.099, p>.05$ ), 매개변인인 자기분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459, p<.001$ ). 이 때 모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3단계에서는 모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자기분화는 모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4> 모의 양육태도 전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완전매개효과

또한 다음의 <표 IV-10>에서처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IV-10> 모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변수의 경로 단계					매개효과 (Z-value)
모의 양육태도 전체	→	자기분화	→	자아정체감	7.832(.000)

\* $p < .05$ , \*\* $p < .01$ , \*\*\* $p < .001$

Sobel-test 분석 결과,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모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Z=7.832$ ,  $p < .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1>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5>와 같다.

<표 IV-11>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beta$	$t$
1	모_애정적대	자기분화	.442	368.718	.489	.025	.666	19.202***
2	모_애정적대	자아정체감	.166	93.110	.400	.041	.409	9.6489***
3	모_애정적대 자기분화	자아정체감	.280	93.318	.103 .607	.052 .070	.105 .456	1.997** 8.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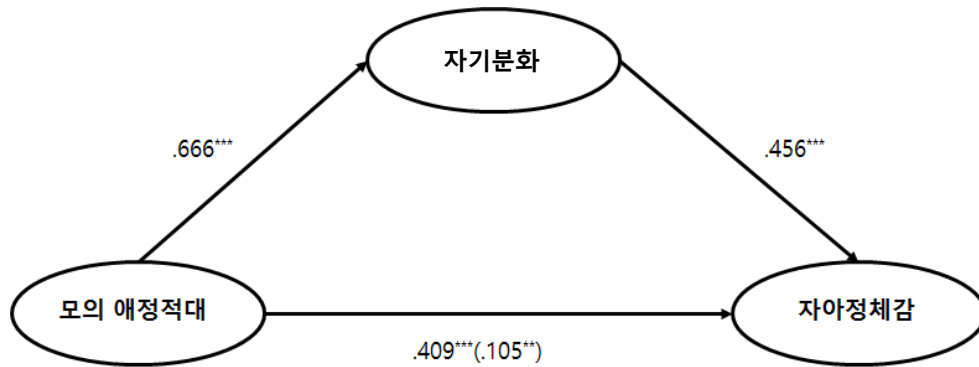
\*\* $p < .01$ , \*\*\* $p < .001$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애정적대 태도는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666, p<.001$ ),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애정적대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애정적대 태도는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409, p<.001$ ),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자아정체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애정적대 태도와 자기분화를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분화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모의 애정적대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beta=.105, p<.01$ ), 매개변인인 자기분화도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456, p<.001$ ). 이 때 모의 애정적대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영향력이 .409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모의 애정적대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105로 감소하였으므로 자기분화는 모의 애정적대 태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5>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부분매개효과

또한 다음의 <표 IV-12>에서처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IV-12>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변수의 경로 단계					매개효과 (Z-value)
모의 양육태도_애정-적대	→	자기분화	→	자아정체감	7.927(.000)

\* $p < .05$ , \*\* $p < .01$ , \*\*\* $p < .001$

Sobel-test 분석 결과,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Z=7.927$ ,  $p < .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3>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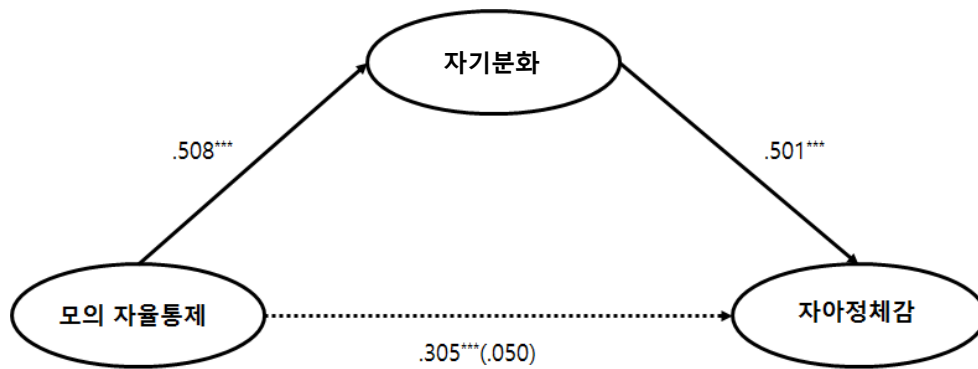
<표 IV-13>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 <sup>2</sup>	F	B	SE	β	t
1	모_자율통제	자기분화	.256	160.739	.451	.036	.508	12.678***
2	모_자율통제	자아정체감	.091	47.349	.360	.052	.305	6.881***
3	모_자율통제 자기분화	자아정체감	.276	89.394	.059 .666	.054 .061	.050 .501	1.097 10.924***

\*\*\* $p < .001$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자율통제 태도는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 = .508, p < .001$ ),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자율통제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자율통제 태도는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 = .305, p < .001$ ),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자아정체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6>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완전매개효과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기분화를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분화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모의 자율통제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beta=.050, p>.05$ ), 매개변인인 자기분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501, p<.001$ ). 이때 모의 자율통제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3단계에서는 모의 자율통제 태도가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자기분화는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의 <표 IV-14>에서처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IV-14>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변수의 경로 단계				매개효과 (Z-value)	
모의 양육태도_자율-통제	→	자기분화	→	자아정체감	8.231(.000)

\* $p < .05$ , \*\* $p < .01$ , \*\*\* $p < .001$

Sobel-test 분석 결과,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Z=8.231$ ,  $p < .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자율통제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는 개인 외적 요인인 부모양육태도와 개인 내적 요인인 자기분화를 분석하여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상담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청소년상담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기분화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들과 자기분화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자기분화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양육태도 중 부모의 애정적대와 자기분화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부모의 자율통제와 자기분화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분화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이은주(2001), 유혜경(2004), 이유리(20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부모로부터 애정적, 자율적 양육을 받은 청소년 자녀인 경우 자기분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한 김미경(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고등학생 시기에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양육을 받으면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의 목표를 독립적으로 설정하여 자신의 문제를 성숙한 자세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들과 자아정체감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부모양육태도 중, 부모의 애정적대와 자아정체감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부모의 자율통제와 자아정체감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부모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김형태(1989), 이태영(1994), 이화림(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부모로부터 애정적, 자율적 양육을 받은 청소년 자녀인 경우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공계숙(200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것은 청소년기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공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애정과 자율성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유진이(201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기를 둔 부모는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독립을 추구하려는 자녀의 변화에 애정을 갖고 공감적으로 이해해주며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부모 양육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고등학생의 자기분화와 자아정체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등학생의 자기분화와 자아정체감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분화와 자아정체감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발달된다고 보고한 이경희(2005)와 문은미(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기분화는 개인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보고한 김정택과 심혜숙(1992)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키고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가 높아져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알아

보기 위해 Sobel(1982)의 유사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양육태도(자율통제)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는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양육태도(애정적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양육태도(자율통제)가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기분화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며 부모양육태도(애정적대)가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기분화를 통해 부분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키고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인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등학생들의 성공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지만 독립된 사고와 융통성으로 주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기분화를 기른다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매개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역할혼미를 느끼는 등 자아탐색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적 접근을 할 때 개인 외적 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보다는 개인 내적 변인인 자기분화를 높일 수 있는 상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예민한 시기인 고등학생 시기에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롭고 자신만의 태도나 가치 및 신념을 부모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중요한 발달 과업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해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되고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키고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는 자기분화를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자기분화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

있던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자기분화와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냄으로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해 부모양육태도에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독립된 사고와 융통성으로 주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기분화를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상담 장면에서 자아정체감 문제를 호소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자기분화를 기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위치한 총 5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과 자기분화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자기분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이 응답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개인적인 심리적 요인과 방해되는 상황적 요인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응답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양적연구로써 고등학생의 자기분화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전략에는 다다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분화 향상 집단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실험연구 또는 질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분화 증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와 관찰법 등을 이용한 조사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김미애 (1991), **농촌지역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혜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역기능적 신념 및 사회 불안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계숙 (2005), **중학생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소희 (2014),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의 관계;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순명 (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중, 고선옥, 박미희, 신리행, 유현숙, 이미정, 정재경, 황정금 (2012), **부모교육 (개정판)**, 경기고양: 공동체.
- 김광웅, 김순재 (1996), **청소년의 기질 및 부모양육태도와 자아분화와의 관계**, 생활과학연구지, 11, 237-257.
- 김미경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김보현 (1999),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욱 (2010),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정신 건강간의 관계: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4), **부모양육태도 및 아동학대피해와 집단따돌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저소득 지역의 중·고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기 (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재 (1996), **청소년의 기질 및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와의 관계**, 숙명여자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숙 (2002),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 김유정 (2015),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 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 불일치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200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 (1974), **한국가족과 집단 성격과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택, 심혜숙 (1993), **자아분화 개념을 통한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기능의 특징**,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 31-45.
- 김종운, 양민정 (2014), **대학생의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 연구**, 제14권 제2호, pp. 283-299.
- 김종운, 최미숙 (2011), **가족기능 및 자아정체감이 고등학생의 진료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0권(3), 175-196.
- 김진아 (2004),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발달에 관한 고찰**, **제주관광대학 논문집**, 10, 31-43.
- 김진영 (201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자아분화 및 자아 존중 감의 관계: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호 (2001),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의 태도와 그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분화수준의 관계**,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하정 (2018),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민 (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수치심 및 사회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효은 (2013), 초기청소년의 부모애착, 역기능적 태도,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상철 (2004), 양육 태도와 자아분화 수준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철, 유영달 (2007),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 및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51-75.
- 남희경 (2002), 가족관계, 자아강도 및 대인관계의 부정적 정서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혜정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애,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명창순 (2016), 중학생의 진로탐색과정에서 자아정체감 형성을 돕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은미 (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정덕 (2006),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과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희선 (1995), 어머니의 자아분화수준과 자녀양육태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 권기남 (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박남숙 (2005),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97-215.
- 박미석, 조혜진(2002),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7, 67-88.
- 박아청 (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정민사.
- 박아청 (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Ⅱ,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17(3), 373-392.

- 박아청 (2004),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18(1), 301-312.
- 박아청 (2008), **정체감 연구의 전망과 과제**, 서울: 학지사.
- 박아청, 이승국 (2000),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교육학논총**, 20(2), 255-281.
- 박은미 (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기성인기의 친밀한 대인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선 (2011), **아동의 자아분화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희정 (2000),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3).
- 배미예 (2007),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자기통제력, 대인관계 문제 및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하 (2003), **원가족에서의 자아분화가 지도력 및 대인관계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1), **Amos19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백승진 (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기 명확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2012),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의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 및 부모 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제19권 제1호, pp.207-226.
- 서봉연 (1975), **자아정체감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설희 (1994),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경원 (2010),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윤정 (2010), **고등학생의 부모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

- 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상규 (1989),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형성수준과의 관계**, 공주사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우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제11권 제1호.
- 오현정 (2009), **중학생의 내외통제성, 또래관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경희 (1999), 청년기의 자아분화 정도 및 개체화 유형과 자아정체감 발달, **학생생활연구**, 6, 광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 (2001),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 사회적적용: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권(3), 135-149.
- 유혜경 (2004),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남자 중학생 자아분화 수준과의 관계**,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혜림 (2015), **전문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옥 (2000), **집단 따돌림 피해자 및 가해자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기술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연 (2001),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성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이 (2002), 가정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65-7.
- 이경아, 정현희 (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상담치료**, 11(2), 213-226.
- 이신숙 (200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 관계학회지**, 5(1), 23-43.
- 이영미, 김경화, 민하영 (2006), 청소년의 성별 및 신체상, 공격 자기의식에 따른 자아가치감,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137-138.
- 이유리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살경향성 간 관계에서 자**

- 아분화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경 (2017), **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과 자아분화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분화수준 및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 (2009),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구조,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1021-1033.
- 이지민 (2010), 가족 건강성,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대학생 우울간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1(3), 1271-1287.
- 이지윤 (2000),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사회성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영 (1993),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 (2012),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회귀분석**, 서울: 집현전.
- 이현주 (1996), **부부의 자아분화 정도와 갈등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08), 대학생의 성별 및 사회불안 수준에 따른 진로개방성, **진로탐색활동, 진로정체감의 차이**, **교육학 연구**, 46(1), 79-99.
- 이화림 (2001), **부모 양육태도와 중·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표 (1996), **청소년의 자아정체 발달 수준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순 (2016), **부적응 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자아정체감을 위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사라 (200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분화도와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 (2012), **청소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전미현 (2012),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분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화 (2008), **고등학생의 자기분화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 (1994),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형택 (2016), **고등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모형 검증**,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문자, 정혜정, 이선훈, 전영주 (2012),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미란 (1994), **청소년 발달시기에 따른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영 (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진은영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 효능감 및 정상 경험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구, 김누리 (2007), **청소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최영란 (2017),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란, 송진영 (2017), **고등학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3(5), 319-346.
- 최연실, 김현영 (2005),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1, 1-17.
- 하상희 (2012), **남녀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정신건강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2),177-195.
- 하영자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미 (2011), 가족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 정체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원표 (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분화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parental discipline. In M. L.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York: Prentice-Hall.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ecker, W. C. (1964),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 Blos, R. (1979). *The adolescent passage*.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New York.
- Bowen, M. (1960). A family concept of schizophrenia. In Jackson, D. D. (ed.). *The Etiology of Schizophrenia : An intergrated Approach*. New York : Ronald Press.
- Bowen, M. (1976). *Therap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pp. 42-90). New York: Garden.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Vanderkooi, I. K., & Handelsman, M. M. (1984). Toward an integration of Jungian and Bowen perspectives on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11(3), 217-227.
-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Dignan, D. H. (1966). Ego identity and materi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6-483.
- Dyk, P.H. (1990). Family relations factors that facilitate or inhibit middle adolescent

- identity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 Monograph 1*, 1-171.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Eric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W. W. Norton.
- Eric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arton.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A review. New York: Norton.
- Fishbein, S.,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 Addison-Wesley.
- Garfinkel, H. N. (1980). *Family system personality profile: An assessment instrument based on Bowen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LosAngeles.
- Gushue, G. V. and constantine, M. G.(2003), Examining individualism, and self-differentiation in African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Mental Heselth Counseling, Vol. 27*, 49-54.
- Hansen, J. C. & L'Abate, L(1982), Approaches to family therapy, New York: Macmillan.
- Hauser, S. T. & Follansbee, D. J. (1984). Developing identity: Ego growth and change during adolescence. In H. E. Fitzgerald, B. M. Laster. & M. W. Yogman. eds. *Theory and research in behavioral pediatrics. Vol. 2. New York: Plenum*. 207-268.
- Hoffman, J. 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 1985-217.
- Hoffman, J. A. & Weiss, B.(1987), Family dynamic and presenting problem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ffman, M. C. & Hoffman, L. W.(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1.New York: SageFoundations

- Hollander, C. E.(1983), Comparative family systems of Moreno and Bowen,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Psychodrama and Sociometry*, 36,(1).
- Kleiman, J. (1981). Optimal and normal family functioni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1), 37-44.
- Kline, R. B. (1998). Software review: Software program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mos, EQS, and LISREL.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6(4), 343-364.
- Lopez, F. G & Campbell, V. L.(1986). Depressi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 An Investigation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52-56
- Marcia, J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Y: Wiley.
- Sabatelli, M., & Mazor, A. (1980), Differentiation, individuation, and identity formation: *The integration of family system and individual developmental perspectives*. *Adolescence*, 20, 619-633.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 Schaefer, E. S.(1959),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 Scharff, D. E. (1996). *Object relations theory and practice: an introduction*. Northvale, New York: Jason Aronson.
-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oarent-child relationship*, NY; Bureau of Publication. Teacher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Tokar, D. M., Withrow, J. R., Hall, R. J., & Moradi, B.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3-19.

Valerie A. Johnson (2000). *The concept of differentiation as a contribution to the psychology of maturity*.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Vanderkooi. I. K., & Handelsman. M. M. (1984) Toward an integration of Jungian and Bowen perspectives on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6, 615-623.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self-identity**

Myung Suk Kim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Bo Young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differentiation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self-identity. For this purpose, 500 high school students in five high schools in Jeju area were surveyed. A total of 480 copies were collected. Of these, 465 copi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except for 15 copies that were nonresponsive or fraudulent.

In order to measur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h Seong-sik and Lee Jong-seung (1982) used the scale of re-use by Han Chang-hoon (2012) In order to measure the identity, Lee, Seung-guk (1999) used some modified or complemented measures and used some modified ones based on the questionnaire of Seok-bong (1989) and Kim Kyung-bok (2005).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verall data,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In addition, a 3 - step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ego - differentiation i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ego - identity. Sobel test was used to ver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mediation eff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enting attitude, self - identity, and self - differentiation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In other word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self - identity, and self - differentiation.

Second, self - differentiation has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self - identity of parenting attitude (self - control). In other words, parenting attitude (autonomous control) indirectly influences self - differentiation rather than directly affecting self - identity.

Third, self - differentiation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self - identity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In other words, the parenting attitude (affectionate hostility) shows a partial indirect influence through ego differentiation rather than directly affecting ego ident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influences ego identity by mediating ego differentiation. Therefore, it can be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ounseling strategies and programs that can develop self - differentiation in order to improve self - 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appealing to self - identity.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모두 귀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이며 조사결과는 연구를 위해서만 이용될 것입니다.

각 문항은 옳고 그름의 정답이 있지 않으니 문항을 잘 읽어 보시고 솔직하게 본인이 느끼고 생각한 대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문의 결과는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이름을 쓰지 않고 통계 처리되므로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한 문항, 한 문항은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모든 문항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 최 보 영

연구자 : 김 명 속

○ 다음은 여러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또는 ○" 표 또는 숫자로 표기 해주세요.

1. 고등학교 \_\_\_\_\_ 학년    2. 성별 : ( 남 , 여 )    3. 나이 : ( \_\_\_\_\_ 세 )

### <부모양육태도>

(1)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부모님이 안계신 경우에는 부모님의 역할을 해 주시는 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부모님에 대한 현재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빠짐없이 해당란에 "√ 또는 ○"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를 하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	부모님은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물건까지도 전부 사다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	내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부모님은 싫어 하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	부모님은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한다”고 말씀하실때가 많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모님은 그것이 나쁜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6	부모님은 가족들과 함께 오락회를 열거나 노래부르기를 좋아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7	부모님은 나의 말과 행동에 별로 간섭하지 않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8	부모님은 내 말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9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내 자신에 대한 일을 부모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0	부모님은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1	부모님은 나의 일을 나 스스로 직접 결정하도록 맡겨 주시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2	내가 질문을 하면 부모님은 아시는 데까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애쓰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3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할 때가 많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4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면 부모님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5	우리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6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부모님은 우선 화부터 내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7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거의 허락해 주시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8	부모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9	부모님은 공부나 집안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기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0	부모님은 가끔 정당하지 못한 명령을 무조건 그대로 따르라고 하시는 일이 많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 <자기분화>

(2)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빠짐없이 해당란에 " 또는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즉흥적으로 결정한다	1	2	3	4	5
2	내가 내 의견을 바꾸는 경우는 남이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보다 내가 그렇다고 판단할 때이다	1	2	3	4	5
3	나는 사람들에게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많다	1	2	3	4	5
4	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중시한다	1	2	3	4	5
5	나는 내 감정을 잘 통제한다	1	2	3	4	5
6	논쟁을 벌이는 일이 있더라도 필요한 때에는 내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1	2	3	4	5
7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	1	2	3	4	5
8	나의 말이나 의견이 남에게 비판을 받으면 얼른 바꾼다	1	2	3	4	5
9	나는 욕을 하고, 무엇이든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1	2	3	4	5
10	내 계획이 주위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잘 바꾼다	1	2	3	4	5
11	나는 싸움에 잘 말려든다	1	2	3	4	5
12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위의 말은 참작은 해도 어디까지나 내소신을 따른다	1	2	3	4	5
13	나는 화를 잘 낸다	1	2	3	4	5
14	나는 어릴때부터 부모님이 나에게 대한 근심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1	2	3	4	5
15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 대단히 불편하리라 생각한다	1	2	3	4	5
16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각자 자기 본분을 다했다	1	2	3	4	5

17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내가 못미더워서 지나치게 당부하는 일이 많았다	1	2	3	4	5
18	가정을 떠나는 것이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1	2	3	4	5
19	우리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여간해서 가족간에 금은 가지 않는다	1	2	3	4	5
20	우리 부모님은 형제들 중 유독 나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다	1	2	3	4	5
21	나는 부모님 슬하에서 하루 빨리 독립했으면 싶다	1	2	3	4	5
22	가족들 간에 말썽이 일어도 대부분 서로 상의해 가며 해결 해 왔다	1	2	3	4	5
23	부모님은 나에게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	1	2	3	4	5
24	부모님과 자주 다투기 보다는 안보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1	2	3	4	5
25	우리 가정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다짐을 하는 일이 드물었다	1	2	3	4	5
26	내가 처한 상황은 전부터 부모님이 입버릇처럼 말해 오던 대로이다	1	2	3	4	5
27	나는 자라면서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다	1	2	3	4	5
28	가정에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부모님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잘 처리하셨다	1	2	3	4	5
29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이나 근심은 옛날 부모님이 내게 던지고 했던 걱정이나 근심과 비슷하다	1	2	3	4	5
30	나는 부모님과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1	2	3	4	5
31	우리 가족은 화목하고 단란했다	1	2	3	4	5
32	우리 가족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도 서로 존중해 준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어릴 때 차라리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는 했다	1	2	3	4	5
34	우리 가족은 사소한 일에도 잘 싸웠다	1	2	3	4	5
35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 뿐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다	1	2	3	4	5
36	우리 가족들은 서로 관심이 없다	1	2	3	4	5

## <자아정체감>

(5)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칸에 “√또는 ○” 표 해 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이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다	1	2	3	4	5
3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일을 시작할 때 열성을 보이거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1	2	3	4	5
5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1	2	3	4	5
6	나는 모임에 나가면 가급적 사람이 적은 곳이나 구석에 앉는다	1	2	3	4	5
7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1	2	3	4	5
8	나는 내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1	2	3	4	5
9	나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한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사람이 하자는 대로 잘 이끄는 편이다	1	2	3	4	5
12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1	2	3	4	5
13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스스로 처리한다	1	2	3	4	5
14	나는 우리집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1	2	3	4	5
15	나는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스스로 잘 모르겠다	1	2	3	4	5

16	나는 한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7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1	2	3	4	5
18	나는 여러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1	2	3	4	5
19	나는 내 판단에 자신이 있다	1	2	3	4	5
20	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1	2	3	4	5
21	나는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알고 있다	1	2	3	4	5
22	나는 계획한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하는 편이다	1	2	3	4	5
23	나는 혼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1	2	3	4	5
25	나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1	2	3	4	5
26	나는 이세상 일은 결국은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7	나는 장차 나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8	나는 빈둥거리며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다른 사람을 이끌기 보다는 따라가는 편이다	1	2	3	4	5
30	나는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	1	2	3	4	5
31	나는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32	나는 이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지 않다	1	2	3	4	5
33	나는 장래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없다	1	2	3	4	5
34	나는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35	나는 결단력이 부족한 것 같다	1	2	3	4	5
36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유별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1	2	3	4	5
37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1	2	3	4	5

3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9	나는 나 자신의 삶의 목표를 뚜렷이 정해 놓고 있다	1	2	3	4	5
40	나는 어렵거나 힘든 일은 피하는 편이다	1	2	3	4	5
41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린다	1	2	3	4	5
42	나는 각종 모임에서 지도자 역할을 기꺼이 맡는 편이다	1	2	3	4	5
43	나는 일단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어야 한다	1	2	3	4	5
44	나는 내자신을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5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1	2	3	4	5
46	나는 남보다 잘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1	2	3	4	5
47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이다	1	2	3	4	5
48	나는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편이다.	1	2	3	4	5

♣ 감사합니다 ♣